어린이 책꽂이

▲요정들이 사는 공원의 흰둥이 시리즈=강아지 흰둥이와 멍멍 순찰대가 공원을 지키기 위해 장난꾸러기 요정들에 맞선다. 이들이 펼치는 재미난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비 오는 날의 흰둥이', '한여름 밤의 흰둥이', '눈오는 날의 흰둥이' 등 총 3권.
〈어린이나무생각·각 권 8천800원〉

▲0학년 과학교과서=취학 전 아동들이 보면 좋을 기초과학 상식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풀었다. 포유동물, 식물, 곤충, 인체, 지구 등 총 5권으로 구성됐다. 아이들이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과학을 친숙하게 하는 데 제격이다. 〈동아사이언스·각 권 9천800원〉

▲피아노 치는 늑대, 울피=친구를 그리워하는 울피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아름다운 늑대. 친구들을 위해 연주를 하며 성숙해지는 울피를 통해 나눔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고래이야기·9천원〉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 이황='새 시대 큰 인물' 시리즈의 47번 째 책. 참된 학문의 길을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이황은 권력을 탐하던 학자들이 벌인 사화의 소용돌이에서도 자연을 벗삼아 학문에만 정진했다. 진정한 선비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주니어랜덤·8천원〉

▲까매서 안 더워?=안산시 이주노동자 마을을 소재로 한 책 '국경없는 마을'의 어린이판.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꿋꿋하게 옮길 수 있는 용기를 북돋는 세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주 가족과 한국인, 그리고 그들이 속한 한국 사회 사이를 아이들의 시선으로 풀어냈다. 〈파란자전거·8천500원〉

잊고 있었구나, 우리의 신화

꽃아 꽃아 문 열어라 이윤기 지음

많은 독자들에게 이윤기는 그리스 로마신화와 동의어로 읽힌다. 출간 후 100쇄를 넘긴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롯, 그가 펴낸 신화 관련 서적을 읽어본 사람들은 그의 맛깔스런 글쓰기와 해박한 지식이 어우러진 '우리 신화 이야기'를 내심 많이 기대했을 것이다.

이 씨가 최근 펴낸 '이윤기 우리 신화 에세이-꽃아 꽃아 문 열어라'는 그런 독자들에게 반가운 책이다. 단군과 웅녀, 주몽과 유리 태자, 박혁거세와 알영,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유화부인, 염제 신농 등 우리 신화 속 인물들은 전작의 포세이돈, 하데스, 푸쉬케처럼 생생하게 살아 움직인다.

책은 고백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고대 그리스의 서사 시인 호메로스의 고향 터키의 이즈미르까지 찾아다니면서 정작 '한국신화의 보물창고'인 '삼국유사'가 씌어진 장소가 자신의 고향인 경북 군위군의 인각사라는 절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일을 부끄러워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화인 단군 신화는 하늘에서 내려온 환인과 환웅으로부터 유래한다.

또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는 한국어는 물론, 영어와 일어로까지 수차례 읽었으면서도 우리 신화의 텍스트인 '삼국유사' '제왕운기' '동국이상국집'은 그리스를 여행하고 나서야 집어든 일도 고백한다.

이 책이 재미있게 읽히는 건 단순하게 우리 옛 신화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경험과 주변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신화 속에 버무려 '현재적 의미'를 부여한다.

이야기의 출발은 신화의 중요한 모티프인 '나를 찾는 것' '아비 찾기'에서 시작된다. 지금부터 50년도 전에 20호 남짓한 경북의 두메산골에서 아이들이 얼기설기 무대에 올렸던 연극 '유리 태자'의 주인공 유리는 '나'를 있게 한 '아비'를 찾아 떠난다. 유리는 아비인 태양신을 찾아 유랑을 떠났던 파에톤의 다른 이름이고, 칼과 구두를 감춰둔 무거운 돌을 들 만한 힘이 생기면 신표를 가지고 아비를 찾아오라는 말에 따라 아비 찾기에 나선 테세우스이기도 한 셈이다.

저자는 어릴적 아버지를 잃은 자신이나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며 구슬픈

일상 속에서 발견한 신화 이야기
화려하고 몽환적인 일러스트 눈길

동요를 부르다 눈물을 흘리는 친구 역시 '상실'을 가슴아파하는 또 다른 '유리'였음을 이야기한다. 또 '아비 찾기'를 통해 '자신의 본 모습 바라보기'를 이뤄낸 사례로는 월북 작곡가 김순남과 그의 딸인 유명 방송인 김세원의 이야기로 풀어나간다.

저자는 '해독되지 않는 텍스트' 경주로 떠나 신라 건국 신화의 일화를 살펴보며 모든 것은 '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또 많은 신화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알'과 '박'과 '버들'(유화부인 등)의 의미도 탐구한다.

그밖에 책은 공주의 옛지명인 웅진(熊津·곰나루)에 얽힌 이야기, 3형제·3자매 등 유독 '3'과 연관이 많은 신화 이야기, 신라 4대 탈해왕의 사례를 통해 들여다본 대장장이 신화 등을 만날 수 있다.

신화학자 조셉 캠벨의 '꿈은 개인의 신화요, 신화는 모듬살이의 꿈'이라는 정의를 좋아하는 저자는 빈틈 없는 해석은 '신화의 감옥'이라고 말하며 다양한 해석을 시도한다.

이번 책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권신아씨의 화려하면서도 다소 몽환적인 일러스트다.책 뒷쪽에는 사진작가 이지누씨가 찍은 다양한 사진들도 실려 있다. 〈열림원·1만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정신과 의사가 본 우리들 마음은?

당신의 속마음 하지현 지음

'관계의 재구성', '소통의 기술' 등 심리학 책을 써온 정신과 전문의 하지현씨가 새 책을 냈다.

'당신의 속마음'은 10년 넘게 쌓인 저자의 임상 경험과 생활인으로서의 일상 경험이 녹아 있어 전문성과 현실 감각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

1부 '남과 여'는 근육맨은 한물가고 꽃미남이 득세하는 이유, '골드 미스'가 좀처럼 결혼하기 힘든 이유, 연상녀 연하남 커플이 느는 이유 등 한국 갑남을녀의 일상을 꼬집는다.

2부 '부부 리포트'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뱉어내는 부부 사이의 언어 습관을 분석해 갈등의 불씨가 도사리고 있음을 밝혀낸다. 저자는 3부 '시네마테라피'에서 영화 속 주인공이 겪는 갈등을 통해 전능 환상, 동화와 조절, 정체성, 망상, 말 실수, 우울증, 화 등 다양한 장애 코드들을 짚어내고 있다.

〈마음산책·1만1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조선시대도 부동산 투기 있었구나

럭키경성 전봉관 지음

옛날에도 부동산 투기란 것이 있었을까?

근대 조선의 살인과 연애 스캔들을 다룬 '경성기담'의 작가 전봉관(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씨는 신간 '럭키경성(樂喜京城)'을 통해 '예스'라고 답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자는 자본주의의 첫 맛을 본 근대 조선인들의 투기 열풍을 파헤쳤다. 부동산 투기로 조선 제일의 땅 부자가 된 김기덕, 쌀 투기판에서 천당과 지옥을 오간 반복창, 주식 투기 등 여러 사업에 뛰어들었던 소설가 김기진 등 구한말 '쩐의 전쟁'의 단면을 보여준다.

또 북한의 애국열사릉에 묻힌 유일한 자본가 이종만, '똑바로 걷기' 경영을 실천한 민족교육가 이승훈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인물들도 살핀다. 저자는 꼼꼼한 자료 수집을 통해 "저주하면서도 강렬히 원하는" 돈이 근대 조선을 어떻게 통과해왔는지를 보여준다. 〈살림·1만2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읽기

민병갈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

바닷물이 달을 타고 오르듯 칼 밀러, 그도 천리포로 갈 수 밖에 없었을까. 푸른 눈의 한 청년이 태평양을 건너와서 한국사람 민병갈로 생을 마감한 아름다운 인연에 대해 그가 일구고 떠난 아름다운 동산에 대해 달리 상상할 방법이 없다. 친구 따라 만리포에 갔다가 풍광에 반하고 또 노인이 딸 혼수비용 때문에 걱정하는 어버이사랑에 반한 그는 용도도 없이 할아버지의 땅을 매입한다.

그 일이 계기가 돼 천리포 땅을 무려 18만평이나 35년 동안에 걸쳐 제 침을 바르듯 마음을 바쳐 박토를 옥토로 바꾸어 낸다. 평생 독신을 고수하면서 자연을 낳아 퍼트린다. 제 각각 아비 되고 자식 되어 서로를 돌보며 사는, 수평의 사랑을 실현시킨 것처럼 천리포수목원은 선악의 변별이 필요 없어 보인다.

그런 힘은 거미줄은 물론 송충이까지도 고귀한 생으로 섬긴 수목원 주인의 참 특별한 철학 때문이었으리라. 꽃창포와 목련 수선 수국의 수런거림을 먹고 자라 조금 더 높이 나는 청(靑)호반새와 해오라기는 갯맷꽃, 갯방풍, 갯치치, 갯장구채를 돌보고 그들은 지렁이, 거미, 개구리, 우렁이, 메뚜기들의 울음소리를, 그쪽은 또 꽃창포, 목련, 수국, 수선, 호랑가시나무와 나비를, 그들은 또 수련, 기름나물, 곰취, 앵초, 오루귀, 복수초, 노루오줌을, 그쪽은 또 곰솔, 떡갈나무, 굴피, 졸참, 굴참, 소사, 찰피나무, 소태, 생

홀로 35년간 일군 '생명의 정원'

강, 산뽕, 팽, 합다리, 고로쇠, 참회, 올괴불나무와 소나무를, 나무들은 풀, 돌, 연못을 돌보며 날마다 눈부시다.

더불어 사는 생의 한 표본인 저 수평(水平)의 사랑동산에 설 때마다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이 죄가 되어 울던, 마음 독해지는 약이 있다면 사먹고 싶어 울던 어제들을 몰래 떨어뜨리고 싶어질 것이다. 게다가 책의 내용에 앞서 눈을 사로잡는 온갖 생명들의 눈부신 자태들을 사진으로 만나보는 일만으로도 이 칙칙한 여름이 시원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부디 한 천사가 남기고 간 꽃과 나무들의 눈부신 자태들을 가족과 함께 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는 행복을 체험하시길,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면 방학과 휴가철을 맞은 가족 친지와 함께 천리포수목원을 찾아가면 어떨까?

가서 흰뺨검둥오리새끼들이 수련사이에 길을 열면 수목원 식솔들이 그의 넋을 위해 머리 숙여 제(祭)를 올리는 시간, 수련천지의 꽃제사(祭祀)와 잎잎이 나팔을 부는 입술들의 장엄한 제사를 체험하시길, 그리하여 뱀의 혀가 그가 남기고 간 동산에도 행여 끼어들까봐 천리포수목원 지분의 재앙을 몽땅 껴안고 먼 길 떠난 낭 새 날개에 "미군 정보장교 칼 밀러를 버리고 민병갈이 되어 천리포 18만평을 낙원으로 복원시켜 한국에 바치고 떠났다"는 보고서가 있었음을 한 편의 시(詩)처럼 상상하며 돌아오시길 간절히 빌고 싶은 심정이다.

한국이 좋다고 눌러 살았던 많은 외국인들이 말년이 되면 수집품들을 고국으로 가져갔지만 민병갈만은 고국의 부모형제에게 단 한 푼의 돈도 남기지 않고 오직 천리포수목원의 장래만을 걱정하며 떠난 분이다. 이쯤이면 한 사람으로 지상에 와서 낙원의 일부를 다시 찾아 신(神)께 바치고 떠난 최초의 사람이라 칭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책을 덮었다.

박라연 〈시인〉